

국가 기간산업에서 아름다운 아파트까지, 국내 초우량 종합건설기업 동부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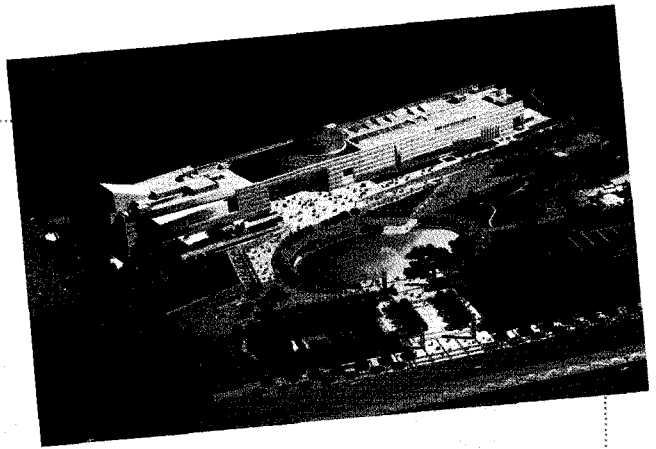
동 부그룹의 모체인 동부건설은 1969년에 창립되어 경제개발 초기 극도로 열악했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 토목공사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건설 시장에 선두주자로 진출, 각종 대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중동 성공신화를 창조하였다.

동부건설은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청담대교, 광명역사, 서귀포항, 양양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등 주요 국가 기간기업 건설에 기여해 왔으며 토목·건축·플랜트 사업을 기반으로 주택사업, 민자유치 SOC,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건설의 건축물은 아름다운 조형미로 이름이 높다.

세계에서 3번째로 시공된 국내 최초 복층교량 청담대교를 비롯하여 세계 5위 규모로 역사에 기록될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지력을 세계에 알린 전주 월드컵경기장,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코리아디자인센터, 테헤란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동부금융센터 등의 시공으로 국내 건설사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동부건설의 시공기술력으로 대표되는 청담대교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강남



구 청담동을 잇는 폭 27m(왕복 6차로), 연장 1,241m의 교량으로 아래층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윗층에는 자동차가 통행하도록 건설되어 한강의 도로교량으로서는 18번째, 철도교를 포함하면 23번째가 되는 교량이다.

청담대교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 영국 런던의 타워브리지 등 세계적인 교량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물로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교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집, 동부센트레빌

기존 아파트의 딱딱하고 일률적인 외관을 탈피하여 아파트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전략으로 국내 수준급 건축디자인 전문업체가 디자인을 전담, 단지를 거대한 하나의 조형작품으로 '동부센트레빌'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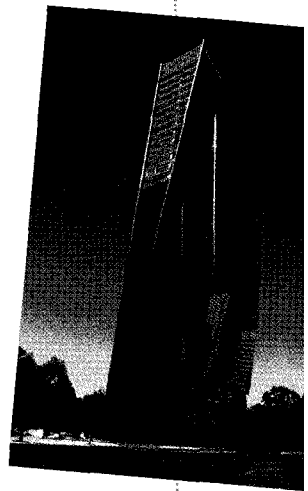
이러한 센트레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은 업계에서도 인정받아 2001년 건교부 주관 건축문화대상 주거부문 대상 수상, 2002년 서울시 건축상 야간조명부문 수상, 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2003·2004년 한국주택문화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촌동 동부센트레빌은 아파트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독특한 외관 모양이 한강의 경치와 어우러져 더욱 돋보이는 단지로서 동부건설이 최근 아파트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벽색채, 단지조경, 외광조명, 내부인테리어 등을 개선시킨 노력이 잘 표현된 곳이기도 하다.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난간을 없앤 것도 특징으로, 폭 1.1m 짜리 난간을 없앤 자리에 강화유리를 시공하고 투명유리대신 커튼월을 설치한 것도 이색적이다.

이처럼 수려한 외관과 더불어 밤에는 조명디자인이 아름답게 한강을 비춰주어 입주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

동부센트레빌은 단지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조형작품으로서 국내 수준급 건축디자인 전문업체가 전담한 외관디자인으로, 기존아파트와는 차별화된





건축미학으로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입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조경계획으로 단지 전체에 생동감을 주고 있는, 대자연을 모태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형 토탈디자인 주거공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좋은 기업' 으로...

동부건설은 작고 강한 조직을 위하여 일당백의 간부를 양성하고, 아웃소싱의 확대,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개선, 영업활동의 조직화 및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수주와, 시공기술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주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경영평점에서는 건설업체 중에서 최상위에 링크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원가절감노력으로 경영실적이 눈부시게 호전되어 전체 거래소 상장사 중 최고의 배당률을 기록하였다.

동부건설은 국내 초우량업체로서 건설업계 최고의 당기순이익율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경영지수의 호전으로 수주분야에서 호조를 보여 공공공사 수주실적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경영실적 지표인 경영평점도 건설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도급순위 16위, CM 능력평가에서는 건설업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30년 후의 동부건설은 기업의 비전인 보다 더 나은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이야기 한다는 확고한 경영철학 아래 이제는 한국의 '좋은 기업'을 넘어 세계의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한 초우량 기업으로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